

광주FC·전북현대, ACL 반전 노린다

광주, 오늘 일본 고베와 ACL 16강 2차전
전북, 13일 원정으로 시드니와 ACL 2 8강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와 전북현대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주관 클럽 대항전에서 반전을 노린다.

광주가 먼저 극적 역전승을 노린다. 오는 1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일본의 비셀 고베와 2024~2025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 16강 2차전을 갖는다.

광주는 이번 시즌 ACL에 참가한 K리그 구단 중 유일하게 토너먼트에 올랐다.

'기업 구단' 울산 HD와 포항 스틸러스는 리그 스테이지에서 탈락했으나, 이정호 감독의 지도력을 앞세운 광주는 시민 구단의 역사를 쓰는 중이다.

다만 지난 5일 원정으로 치는 1차전에서 0-2 패배를 당하면서 8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규 시간 안에 승부를 보고 다음

라운드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3점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하필 고베라는 점도 광주에는 좋지 않은 요소다.

지난해 11월 리그 스테이지에서 고베에 한 차례 패배를 맞은 광주는 16강 1차전에서 또 패배했다.

줄부상도 광주를 괴롭힌다. 주전 수비수 변준수, 외국인 공격수 가브리엘 등이 2차전에 나서지 못한다.

악재만 있는 건 아니다.

하나은행 K리그1 2025 개막 이후 3경기 동안 1승2무로 패배가 없다는 점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체력적 부담도 덜었다.

지난 9일 예정됐던 포항과의 일정은 A매치 휴식기 중간인 22일로 연기돼, 선수단 체력을 관리할 수 있었다.

즉 1차전 패배 이후 1주일 간의 휴식기를 통해 온전히 고베와의 2차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다행히 2차전도 홈에서 진행된다.

살림 다우사리(알힐랄), 안테르송 로페스(요코하마)와 함께 7골로 득점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시니가 고베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다면, 광주는 버랑 끝에서 생존할 수도 있다.

긍정 요소가 많은 광주와 달리 ACL 2 8강 2차전을 앞둔 전북은 분위기가 더 좋지 않다.

전북은 오는 13일 오후 5시 호주 시드니의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에서 시드니FC(호주)와 격돌한다.

지난 6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진행된 2차전에서 0-2로 완패해, 광주처럼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해선 3점차 이상을 거둬야 한다.

1, 2차전 합계 점수가 같으면 연장전을 펼치고,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승부차기를 진행한다.

전북은 눈에 띄는 전력 이탈은 없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

최근 공식전 3경기에서 연패를 당했다. 지난 1일 울산과의 리그 3라운드에서 0-1로 패배한 데 이어, 6일 시드니에 0-2로 졌다. 그리고 9일 강원FC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도 0-1로 무릎을 꿇었다.

3연패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한 부분도 고민거리다.

지난달 23일 광주와의 리그 2라운드에서 2-2 무승부를 거둔 것까지 확장하면 4경기 무승(1무3패)이다.

설상가상 2차전은 장거리 비행이 있는 원정이다.

거스 포엠티 초기 3연승을 떠올려야 할 전북이다.

전북은 지난달 포트FC(태국)와의 ACL 2 16강 1, 2차전을 모두 승리한 데 이어, 개막전에서 김천상무까지 2-1로 제압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인 바 있다.

그때의 기억을 살려 이번 시드니전에서 웃는다면, 극적 4강 진출뿐 아니라 분위기 반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뉴시스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 등 국제교류단이 필리핀을 방문한 가문대 필리핀한인총연합회와 재필리핀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개최를 염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체육회 제공)

필리핀 한인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힘 보태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단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등과 친선 교류 시간 가져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정강선 회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단이 최근 필리핀을 방문해 필리핀한인총연합회와 재필리핀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친선 교류 시간을 가졌다.

이들 단체와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도 체육회는 우호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해 협업·협력체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이번 교류에서 재외 동포들은 2036 올림픽 국내후보도시로 전북이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넨 뒤 본선에서 대한민국(전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필리핀한인총연합회는 마닐라와 보라카이, 세부 등 필리핀 9개 지역에 있는 한인회와 지회가 속해 있는 단체

다. 이들은 필리핀체육회도 다른 국가체육회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등 인적 네트워크가 뛰어나다.

재필리핀대한체육회 강정식 수석부회장은 "전북이 올림픽 국내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필리핀체육회에서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필리핀한인총연합회 윤만영 회장은 "다른 국가들과 경쟁해야하는 본선이 남은만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우리 한인연합회를 비롯해 국제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서울올림픽 이후 48년만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외 동포들께서도 올림픽 유치 여정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세계선수권대회 시상대 오르는 게 목표"

피겨스케이팅 김채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채연이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11일 태릉선수촌 실내빙상장에서 훈련을 하며 여러 기술과 동작 등을 점검했다.

김채연은 최근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과 ISU 사대륙 선수권 대회를 연달아 휩쓸며 피겨 에이스로 떠올랐다. 그는 오는 26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에 참가한다.

김채연은 이날 훈련 후 기자들과 만나 "매일 아침부터 6시간 대표팀 훈련



을 소화한 뒤 개별적으로 추가 연습을 하거나 지상 훈련을 하고 있다"며 "딱히 불편한 곳 없이 컨디션이 좋다. 이대로 세계선수권까지 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채연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 최고 기록 경신과 시상대에 오르는 걸 목표로 삼았다.

/뉴시스

벚꽃 만개하는 옥정호에서 달린다

2025 옥정호 그라운드 · 메디오폰도 대회

내달 5일 '옥정호 벚꽃축제'와 함께 개최

임실군이 벚꽃으로 둘러싸인 옥정호를 달리는 자전거와의 환상적인 어울림을 선사할 '2025 옥정호 그라운드 · 메디오폰도 대회'를 내달 5일 '옥정호 벚꽃축제'와 함께 개최한다.

벚꽃이 만개하는 시점에 맞춰 열리는 이번 자전거대회는 전국 최상위급 대회로 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회장 유정환)이 주최·주관하고, 자전거 마니아들을 위해 옥정호와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는 4월 5일 토요일 오전 8시 임실종합경기장을 출발해 임실읍, 성수면, 덕치면, 운암면, 청운면 등 관내·외 지역을 경유하여 임실종합경기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서로 진행된다.

경기방식은 '그라운드'와 '메디오폰도'로 구성된다.

'그라운드'는 '긴 거리 이동', 메디



임실군이 벚꽃으로 둘러싸인 옥정호를 달리는 자전거와의 환상적인 어울림을 선사할 '2025 옥정호 그라운드 · 메디오폰도 대회'를 내달 5일 '옥정호 벚꽃축제'와 함께 개최한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오폰도'는 '중간 거리 이동'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유럽을 비롯한 각국에서 자전거 마라톤 이벤트로 개최되고 있다.

그라운드 코스는 총 124km로, 임실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메디오폰도 코스의 반환점인 덕치 회문삼거리를 지나 정읍 산내면사무소, 운암 카페거리, 운암 소재지를 지나 임실종합경기장에 도착하는 여정이다.

특히 도중에 만나는 아름다운 옥정호의 자연경관과 지역의 특색 있는 명소들이 라이더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메디오폰도 코스는 72km로, 임실종합경기장에서 출발, 성수 조치삼거리를 지나 장수 산서, 오수 상신촌, 삼계 하정, 덕치 회문삼거리, 청운 모래재를 거쳐 임실종합경기장에 도착하는 코스다.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지만 다양한 지형과 풍경을 즐길 수 있어 많은 라이더들에게 인기가 있다.

두 코스 모두 라이딩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느끼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경기 구간 내 포스트, 잔석 등을 정비하고, 도로 환경 정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임실경찰서, 임실군 자전거연맹 등과 협력하여 경기 구간 곳곳에 교통 유도 요원을 배치하고,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차단할 방침이다.

심민군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를 사랑하는 전국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자전거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치고, 같은 날인 5일 개막하여 6일까지 열리는 옥정호 벚꽃축제도 방문해 임실의 보물 창고의 봄가운뎃물인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